

다산의 해배 직후 시에 나타난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의 점진적 변이 양상

- 충주 여행에서의 시와, 『천우기행(穿牛紀行)』,
『산행일기(汕行日記)』를 중심으로

김 은 미*

차 례

- | | |
|---|---------------------------------|
| 1. 서론 | 4. 시를 통한 경세 지향의 노정(露呈) |
| 2. 시작(詩作)의 내재적 연속성 - 선형 순차적(線形 順次的) 저술 양상 | 1) 1820년 『천우기행』의 경우 |
| 3. 시를 통한 여행 흥취의 표현 | 2) 1823년 『산행일기(汕行日記)』의 경우 |
| 1) 1819년 충주 여행의 경우 | 5. 여행 흥취의 점감(漸減), 경세 지향의 점증(漸增) |
| 2) 1820년 『천우기행(穿牛紀行)』의 경우 | 6. 결론 : 해배 직후 문학에 나타난 경세 지향 |

국문초록

해배 이후 다산이 보여준 인상적인 시작(詩作) 활동은 그의 여행 체험과 관련된다. 다산은 1819년에 충주를 여행하였고, 1820년과 1823년에는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춘천에도 다녀왔다. 다산은 이 세 번의 여행 경험을 시로 남겼고, 이 시들은 해배 이후 다산 시문학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산은 1819년 충주 여행의 경험을 절구 75수로 남겼고, 1820년 1차 춘천 여행의 체험은 『천우기행』이라는 시권으로 형상화하였다. 또, 1823년 2차 춘천 여행은 『산행일기』와 『산수십원기』에 기록하였는데, 이 저작들은 모두 선형 순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충주 여행의 체험 일부가 『천우기행』으로 연결되고, 『천우기행』의 시편 일부가 『산행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의 여행 경험이 각각의 병렬적 구조로 시화된 것이 아니라 여행 체험이라는 하나의 긴 흐름 속에서 순차적으로 연결,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작에 연속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상의 특징만이 아니다. 충주 여행에서는 경세 지향은 저류할 뿐 상대적으로 여행의 흥취가 도드라지고 있으나, 『천우기행』으로 가면서는 여행의 흥취 못지않게 경세 지향도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산행일기』에 이르러서는 여행의 흥취는 은폐하면서 경세 지향이 보다 강하게 부각된다. 작가 의식에서도 여행 경험이라는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을 점진적으로 변이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행 체험에 나타난 다산의 이런 의식의 변화는 그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 다산의 해배 이후 문학에 대해 보다 정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산은 해배 이후에도 여전히 유배지에서 고민했던 경세의 꿈을 펼치고 싶어 했고, 이런 작가 의식은 그의 시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해배 직후 다산 시에 보이는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의 그라데이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다산, 다산시, 정약용, 천우기행, 산수십원기, 경세 지향, 여행 흥취, 해배

1. 서론

다산(茶山 丁若鏞, 1762~1836) 시문학의 온전한 면모를 밝히기 위해 서는 해배 이후 문학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다. 18년 간의 유배 경험인 정약용 인생에서 가장 큰 굴곡이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작가의 인생 경험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배 이후의 시문학 작품들은 작품 각각에 기반하여 보다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던 유배 경험이 유배 이후 그의 문학적 여정에도 침착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산의 해배 이후 시기에 대해, 강진 시절의 저작 작업들을 수정 보완하여 그의 학문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¹⁾ 다산이 유배 기간 동안 경세학에 열정을 쏟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유배 기간 동안 완성한 경세학과 그의 해배 이후의 삶이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추측도 개연성이 있다. 문학 작품이 작가 의식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해배 이후 다산의 시문학에서 이런 경세 지향의 조짐이 감지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배 이후 다산 시문학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우선 다산의 해배 직후 시에 주목하였다. 그의 시문학을 후보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해배 이후 다산 시문학의 면모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배 직후 다산이 보여준 인상적인 시작 활동은 그의 여행 체험과 관련된다. 다산은 해배되어 집으로 돌아온 1818년 9월 이후 주목할 만한 3번의 여행길에 올랐다. 18년 동안 유폐되어 지내던 강진을 떠나 고향 마재로 돌아온 다산은, 유배의 울울함을 벗고 자발적으로 떠난 세 번의 여행 체험을 시와 글로 남겼다. 이는 그의 해배 이후 문학에서 의미 있는

1) 조성을, 『해배 이후(1818~1836)의 다산-활동과 저작-』, 『2016년 다산 서거 180주년 기념 다산학 학술회의(제19회) 해배 이후의 다산 발표 요지』,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첫 여정이기도 하다.

다산은 해배 다음 해인 1819년 4월, 선영에 참배하기 위해 충주를 여행하였다. 다산은 이때 남한강 수로를 이용해 충주에 다녀왔는데 이 여행의 경험은 여러 편의 시로 남아있다.

다산은 춘천에도 2차례 다녀왔다. 1차 여행은 충주 여행 이듬해인 1820년 경진년 그의 나이 58세의 일이다. 춘천 방문은 조카의 납채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수로를 이용해 여행길에 올랐는데 이 여정은 남한강을 이용했던 충주 여행 때와 달리 북한강을 따라 이루어졌다. 다산은 이 여행의 경험을 『천우기행』이라는 시권으로 남기고 있다.

다산은 1823년에 다시 춘천을 여행하게 된다. 이때의 여행은 손자의 납채가 목적이었다. 이 여행 역시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강을 이용한 선상 여행이었고, 이 여행의 경험은 『산행일기』라는 기행문과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라는 지리서로 꾸려졌다.

다산의 해배 직후-구체적으로 1819년, 1820년, 1823년에 이루어진 이 세 번의 여행은, 모두 수로를 이용한 선상여행이었으며 여행의 체험을 형상화한 시권을 남긴 여행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해배 직후 저술된 다산의 시편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여행 경험을 문학화한 그 작가 의식의 기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해배 직후 여행 문학에 스며든 다산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은 다산의 해배 이후 문학의 전모를 그려보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산 시문학의 온전한 면모를 보다 선명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시작(詩作)의 내재적 연속성 - 선형 순차적(線形 順次的, Linear Sequential) 저술 양상

1820년 1차 춘천 여행의 성과물인 『천우기행』은 47수의 시로 구성되

어 있다. 칠언 절구 25수와, 두보의 시에 화운한 화두시(和杜詩) 12수, 잡체시 10수²⁾로 이루어진 『천우기행』은 북한강을 이용한 춘천 여행의 경험을 형상화한 시권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춘천 여행의 체험만을 독립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수록된 칠언시 25수는 오히려 1819년 충주 여행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권의 서(序)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진술은 다산의 1819년 충주 여행에 1820년 1차 춘천여행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충주여행 때 지은 오언시를 기록하여, 당나라 전기(錢起)³⁾의 <강행백절구(江行百絕句)>를 본뜨고자 했으나 75수에서 그쳤다. 이제 칠언시 25수를 지어 채웠다. 또한 잡체시 약간을 얻은 것이 있어 함께 1권으로 엮는다.”⁴⁾

실제로, 다산은 1819년 충주를 여행하며 75수의 오언 절구를 지은 바 있는데, 이를 1820년 『천우기행』의 25수와 합하면 100수가 된다. 다산의 의도대로 <강행백절구>를 본뜬 100수의 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1820년 춘천 여행에서 한 해 전의 충주 여행을 떠올리고 있다.

2) 잡체시는 <소양정회고(昭陽亭懷古)> 1수, <야숙청평사화동파반룡사(夜宿淸平寺和東坡蟠龍寺)> 1수, <청평사관폭(淸平寺觀瀑)> 4수, <출청평동구(出淸平洞口)> 1수, <증이목참봉장(贈李榮參奉丈)> 1수, <증윤중원유청(贈尹鐘遠唯靑)> 1수, <출협(出峽)> 1수이다.

3) 이것은 다산의 착오로 보인다. 당나라 오홍 사람 전기(錢起, 722~780)는 문집으로 『전고공집(錢考功集)』 10권을 남기고 있는데 다산은 『천우기행』 서에서 이 전기의 <강행백절구(江行百絕句)>를 본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행백절구>는 전기(錢起)가 아니라 전기(錢起)의 증손인 전후(錢珣, ?~?)의 작품이다. 『전당시(全唐詩)』 전당시목(全唐詩目) 제11함(第11函) 제1책(第1冊) 전후(錢珣) 항목에 <강행무제백절구(江行無題百絕句)>가 전한다. 『전당시』 하(下), 중국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4) “前年忠州之行 作五言以紀之 效錢起江行百絕句 七十五首而止 今作七言得二十五首以足 又得雜體若干首 共爲一卷”, 『천우기행』 서.

충주 여행에서 75수만 짓고 다 채우지 못 했던 100수의 절구를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춘천 여행의 경험을 담아 나머지 25수를 채워 지었고, 그가 본뜨고자 했던 <강행백절구>에 맞춰 100수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충주 여행과 1차 춘천 여행이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간극이 있으나 문학적 시간에서는 연속적인 체험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우기행』의 시는 맥락상 충주 여행과 연결되는 면이 있으며 그 시작(詩作)에는 연속성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은 시를 통해서도 이를 밝히고 있다.

此行大抵可名穿	이번 행차는 대체로 천우라 이름할 만하네
藕孔山河貫似錢	연구멍 같은 산하가 돈처럼 꿰어졌으니
二十五絃絃一曲	이십오 현 거문고에 줄마다 한 곡씩 울려
櫂歌新續藥州篇	벃노래를 예주편에 새로이 이어야겠네 ⁵⁾

시의 앞부분에서는 시권의 이름을 ‘천우기행’이라 지은 이유를 밝혔고, 뒤로 가면서는 이 시권의 시 25수를 충주 편에 이어 짓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충주 여행과 1차 춘천 여행이 다산의 의식 속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시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배 직후의 여행 체험을 형상화한 다산 시의 연속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819년 충주 여행의 체험이 1820년 춘천 여행의 흐름에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820년 1차 춘천 여행의 경험은 1823년 2차 춘천 여행의 체험으로 연결된다. 이는 『천우기행』의 시가 1823년 춘천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작 『산행일기』에 재수록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천우기행』 절구 25번째 수. 원시에는 ‘두보(杜甫)의 시에 “즉시 파협으로부터 무탄을 관통하였다[即從巴峽穿巫炭]” 하였다. 예주는 지금의 충주(忠州)이다.’라는 주가 달려 있다.

『산행일기』는 시로써 여정을 전하겠다는 다산의 의식 속에서 저술된 책으로, 다산은 춘천까지의 왕복여정을 『산행일기』에 시로 남겼다. 그런데, 다산은 오고 가는 여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남기지 않았다. 마재를 떠나 춘천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은 따로 시를 지어 기록하는 대신 1820년 1차 춘천 여행에서 지었던 『천우기행』 수록시들을 재구성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즉, 춘천까지 가는 여정은 1차 춘천 여행의 경험으로 대신한 것이다. 반면, 춘천에서의 여정과 춘천에서 마재로 돌아오는 귀로에 대해서는 새로 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비로소 2차 춘천 여행의 체험이 시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1819년 충주 여행의 체험 일부가 1820년 1차 춘천 여행으로 연결되고, 1차 춘천 여행의 체험 일부는 1823년 2차 춘천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산이 1819년과 1820년, 그리고 1823년의 여행 체험을 문학화하는 과정에는 연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선형 순차적(Linear Sequential) 저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선형 순차적 저술은, 해배 직후 5년에 걸쳐 이루어진 다산의 여행 체험이 사실상 하나의 의식적 흐름 속에 포섭됨을 보여준다. 이 여행의 성과물인 시편들 속에는 여행 체험들을 관통하는 다산의 어떤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산의 이 여행 기록들을 검토해 본다면,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였던 어떤 인식의 단면을 파악할 수도 있고 5년 사이에 변화를 보이는 또 다른 어떤 인식의 한 면을 추출할 수도 있다. 해배 직후의 여행 경험이 5년 사이에 지속되거나 변화된 다산의 어떤 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면, 이는 다산의 해배 이후 문학의 양상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를 통한 여행 흥취의 표현

1) 1819년 충주 여행의 경우

『다산시문집』을 검토하면 1819년 충주 여행과 관련된 시로 <사월십오일배백씨승어가소접향충주(四月十五日陪伯氏乘漁家小艇向忠州) 효전기강행절구(效錢起⁶⁾江行絕句)> 75수와 <상묘(上墓)> 1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상묘>는 충주 선산에 도착하여 아버지 묘소를 참배한 후에 지은 시이므로, 충주 여행의 실제 경험은 <사월십오일배백씨승어가소접향충주(四月十五日陪伯氏乘漁家小艇向忠州) 효전기강행절구(效錢起江行絕句)>⁷⁾ 75수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藍子洲前石	남자주 앞의 돌을 보니
丁年憶打魚	스무 살 때 고기 잡던 일이 기억나네
當時衆漁子	당시에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唯有數人餘	이제는 다만 두어 사람만 남았구나 ⁸⁾

이 시에서는 여행 체험이 추억을 환기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위치는 선상이다. 배 위에 있는 화자가 남자주 앞 돌을 보며 젊어서 고기 잡던 일을 떠올려 본다. 그것이 언제 누구와 함께 한 기억인지는 알 수 없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남은 사람도 적다. 그러나 충주로 향하는 선상 여행은 고기 잡던 젊은 날의 추억을 다산의 기억 속에서 불러내 오고 있는 것이다.

6) 앞에서 밝힌 대로 이는 다산의 착오이다. 주 5번 참고.

7) 이 시는 『다산시문집』 제 7권 귀전시초(歸田詩草) 항목에 들어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은 충주 여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사월십오일배백씨승어가소접향충주(四月十五日陪伯氏乘漁家小艇向忠州) 효전기강행절구(效錢起江行絕句)>만 따로 떼어 논의하기로 한다. 진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 <효강행절구(效江行絕句)>로 칭하며, 각 시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인용한다.

8) <효강행절구> 6번째 수

羽林張蟹火	우림 위에 게 잡는 불 설치하고
騎士領漁船	기병들이 고기잡이 배를 거느렸네
歷歷停鑿事	어가 멈추던 일 똑똑히 알겠는데
回頭四十年	머리를 돌려 보니 사십 년이 지났구나 ⁹⁾

그의 회상 속에는 정조(正祖)도 등장한다.¹⁰⁾ 수로 여행은 오래 전 정조가 어가를 멈추던 일을 떠올리게 하며, 자연스럽게 정조의 신뢰 속에 살던 자신의 득의기(得意期)를 회상하게도 한다. 그러나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조는 이제 여기 없고 자신도 불과 몇 달 전에야 자유의 몸이 되어 지금 배를 타고 이 길을 여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시적 화자가 우울한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지난 일이다. 그는 지금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¹¹⁾ 일교차가 커서 밤에서 새벽으로는 솜옷이 필요할 정도이지만,¹²⁾ 모든 것이 갖추어진¹³⁾ 선상 여행은 시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이런 여유는 새로운 풍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진다. 수로를 이용한 선상여행을 통해 다산은 나무 파는 배를 접하기도 하고¹⁴⁾ 술 파는 배를 목격하기도 한다.¹⁵⁾ 여행을 떠나지 않고서는 체험하기 어렵고 육로를

9) <효강행절구> 47번째 수

10) 다산은 충주 여행 이후인 1819년 10월, 정조의 신뢰를 받던 자신의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김봉남, 앞의 글 191쪽, 주 548번 참조.

11) “船行似嘖蔗 深入味彌佳 不經蟾浦口 何得此丹厓 배로 다니기는 사탕수수 씹기 같아서 / 깊이 들어갈수록 맛이 더욱 좋아라 / 섬포 어귀를 지나지 않고 / 어떻게 이 붉은 절벽을 얻을까”, <효강행절구> 60번째 수

12) “瀟灑水風起 船窓冷似秋 由來萍泛者 朱夏蓄棉裘 물가 새벽에 강바람 일어나니 / 배의 창문 가을처럼 쌀렁하구나 /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은 / 여름에도 솜옷을 쌓아둔다네” <효강행절구> 35번째 수

13) “小盒茄椒醬 行廚櫂櫓煙 人間梁肉味 都只在江船 작은 상자에는 고추장 / 여행 길 주방에는 뽕나무 연기 / 인간 세상 좋은 맛이 / 모두 이 배에 있구나” <효강행절구> 36번째 수

14) “瑟瑟谿潭水 衝風破鏡天 紫山凝不動 知是販樵船 곱고 푸른 골짜기 물이 / 푸른 하늘 거울 깨지듯 바람을 받는데도 / 붉은 산은 꿈쩍도 않는구나 / 이것이 나무 파는 배라는 걸 알겠도다” <효강행절구> 9번째 수

이용한 여행으로는 채 알기 어려운 선상 여행의 특별한 경험이다.

다산이 여행하는 남한강은 다산이 습수(濕水)로 생각하던 곳이었다. 하천과 관련된 역사 지리적 측면에서 고증에도 힘썼던 다산은 남한강을 『사기(史記)』의 예에 따라 습수로 보았다.¹⁶⁾ 국토의 지명에 대한 이런 다산의 관심은 남한강을 이용해 충주로 가면서 쓴 시에도 드러나고 있다.

汕濕交流處	산수와 습수가 만나 흐르는 곳
村名二水頭	그 마을 이름이 이수두인데
當門一店叟	마을 앞의 한 점방 늙은이가
堅坐送行舟	꿈쩍 않고 앉아, 가는 배를 보내는구나 ¹⁷⁾

그러나 산수와 습수가 합류하는 이수두(二水頭)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배를 타고 이수두를 지나가는 다산의 시야에는 가만히 앉아 배를 바라보는 마을 앞 점방 늙은이가 들어올 뿐이다. 충주 여행의 시 곳곳에는 배가 지나가는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이 때의 이야기들은 선상 여행자의 눈에 비친 그 고을의 내력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일 뿐이다.¹⁸⁾ 1814년에는 『대동수경(大東水經)』을 저술할 정도로 하천과 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던 다산의 모습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담담한 반응은 오히려 낯설기까지 하다.

15) “遠遠垂楊裏 飛奔賣酒船 始來情勸客 渾似不論錢 저 멀리 수양버들 속으로 / 나는 듯 달리는 술 파는 배 / 처음에는 정으로 손님을 권하여 / 돈은 전혀 따지지 않는 것 같네” <효강행절구> 26번째 수

16) 양보경, 「丁若鏞의 地理認識 - 『大東水經』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Vol.20 No.2 통권 67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1997, 111-116쪽.

17) <효강행절구> 8번째 수

18) “仰德村容小 漁家對水明 地名轟萬口 曾臥李完平 양덕촌은 자그마한데 / 어부의 집이 물 대하고 있어 환하구나 / 지명이 널리 떠들썩한 것은 / 일찍이 이완평이 은거해서라네” 『效江行絕句』 30번째 수, “水北婆娑堡 當時控禦雄 自從倭寇返 無復記嚴公 물 북쪽 파사보는 / 당시에 치고 막던 곳이었는데 / 왜구들이 돌아가 버린 이후로 / 다시 엄공을 기억하는 사람 없네” <효강행절구> 41번째 수.

때로 공적 자아의 목소리가 나타나기는 한다. 척박한 사천 마을의 사람들이 앵두로 세금을 바쳐야 하는 상황, 조운이 끝났는데도 아전의 횡포로 호탄전을 강요받는 상황 등에 주목하기는 한다.

寂寞沙川塢	척박한 사천의 마을에는
由來乏土豪	예로부터 토호가 무력했는데
田間萬株樹	밭 사이에 만 그루 나무가 있어
時至眞櫻桃	때가 되면 앵두를 바친다오 ¹⁹⁾

古廡興元浦	홍원포의 오래된 창고는
橫櫟一字連	가로지른 서까래 일자로 이어졌다
春漕已調了	봄철 조운은 이미 다 마쳤는데도
猶索護灘錢	오히려 호탄전을 찾고 있구나 ²⁰⁾

그러나 75수 전편을 놓고 볼 때, 이런 경세적 관심은 여행 흥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치란(治亂)의 문제에 대한 담담한 진술²¹⁾로도 확인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 다산의 시에서는 경세 지향이 저류하고 있음이 감지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적 자아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여행 중의 흥취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박자(輕薄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 시도 있지만²²⁾ 이것 역시 경박자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곳의 경관이 경박자들이 기녀를 태우고 놀러올 정도의 명승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언술이다.

19) <효강행절구> 12번째 수.

20) <효강행절구> 64번째 수.

21) “潭淳必瀉湍 峽東方開野 治亂恒如斯 窮通有然者 깊은 못은 반드시 여울물을 쏟아 내고 / 골짜기는 좁아야만 들이 열린다 / 치란도 항상 이와 같아 / 궁하고 통함도 그러하다네” <효강행절구> 21번째 수.

22) “知有名都近 江浮載妓船 滿船輕薄子 尖髻擊三絃 명도가 가까이 있는 줄 알겠네 / 기녀 실은 배가 강에 떠 있는 걸 보니 / 배에 가득한 경박자들은 / 뽕죽한 상투에 삼현금을 타는구나” <효강행절구> 45번째 수.

해배 직후 떠난 첫 여행에서 다산은 사회적 시선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여행을 떠난 자연인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충주 여행의 시 대부분은 이런 여행의 흥취를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다.²³⁾ 18년의 긴 유배를 마친 인간 정약용의 행보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2) 1820년 『천우기행(穿牛紀行)』의 경우

『천우기행』에 수록된 절구 25수는 대부분 여행의 흥취를 나타내는 시들이다. 다산은 1820년 춘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남은 생을 구상해 본다. 그것은 일민(逸民)으로서의 삶이었다. 이런 소망이 저류하는 1차 춘천 여행에서 다산은 우선 지난 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여행의 흥취를 즐겼으며 이는 25수의 절구에서 확인된다.

去歲黃驍水上人	지난해에는 황효수가에 있던 사람이
綠驍水上又今春	올봄에는 녹효수가에 있네
황효는 여주(驪州)이고 녹효는 홍천(洪川)이어서, 남쪽을 황효수라 하고 북쪽을 녹효수라 한다.	
一生湖泖扁舟願	한평생 호묘의 일엽편주 바라기는
全把餘齡作逸民	남은 생애 온전히 일민이 되는 것이네 ²⁴⁾
예원진(倪元鎮)이 일찍이 일엽편주를 타고 호묘 사이를 왕래했었다.	

이번 여행에서도 다산은 배 위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 물 속에 들어가 사금을 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가 하면²⁵⁾ 머리에 관을 쓴

23) “百頃鈔羅口 遙承料子洪 愉哉衣襃裏 吹滿綠漪風 백 이랑 사라담 어귀 / 멀리 두공의 넓음을 이었는데 / 즐거워라 옷소매 속으로 / 푸른 잔물결 바람 불어 가득 하구나” <효강행절구> 5번째 수.

24) 『천우기행』 절구 1번째 수

25) “淘金處處浪淘沙 夜泊金墟賣酒家 愛此門前紺綠水 漁船如畫柳邊斜 곳곳마다 물에서 사금을 이네 / 밤에는 금허 술 파는 집에 정박했는데 / 사랑스러워라 이 문 앞의 질푸른 물에 / 버들가에 그림처럼 비껴 있는 어선마저 그림 같구나” 『천우기행』 절구 18번째 수.

채 발가벗은 몸으로 어망을 쳐 놓은 시골 유자들을 관찰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이런 관찰이 녹아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시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장면들을 관찰하는데서 멈추고 있다. 다산의 시선은 그저 자연과 사람에게 향할 뿐이며, 여행의 흥취를 누릴 뿐이다.²⁷⁾ 다만, 충주 여행의 체험을 형상화한 시 75수보다는 『천우기행』의 25수에서 자신에 대한 응시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난다는 차이는 있다.

『천우기행』 수록 절구들은 여행의 즐거움을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손암 정약전(巽菴 丁若銓, 1758~1816)을 그리워한다거나, 잔잔한 자연 풍광을 보면서 문장 짓는 법을 피력한다거나²⁸⁾ 하는 방식으로 충주 여행에 비해 다산 내면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

六十翁隨七十兄 육십 늙은이가 칠십 형을 따라라
瓜皮容易溯江行 작은 배로도 강 거슬러 오르기 쉽구나

- 26) “身赤條條首戴冠 水中撈網坐江干 峽村儒者渾如此 猶自豪雄號八灘 발가벗은 몸 가늘가늘 머리에는 관을 쓰고 / 물 속에 그물 치고 강 난간에 앉았네 / 산골 마을 유자들이 이처럼 미련하다 / 오히려 호걸인 체 팔탄을 부르는구나” 『천우기행』 절구 15번째 수.
- 27) “壽谷幽棲一草亭 煌煌綽楔五紅橋 山家送別風情厚 垂柳陰中帶酒瓶 수곡 그윽한 보금자리 초정 하나 / 작설 홍문 다섯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 산집의 송별하는 풍속이 두텁기도 하구나 / 수양버들 그늘 속으로 술병을 가지고 오네” 『천우기행』 절구 8번째 수, “淸平村色對江開 短柳晴沙抱岸廻 直到水窮源斷處 青山忽吐一船來 청평촌은 강을 마주하여 있는데 / 짧은 버들 깎 모래 언덕을 안고 도는구나 / 곧바로 물의 근원 끊어진 곳에 이르니 / 청산이 홀연히 배 한 척을 토해내네” 『천우기행』 절구 9번째 수, “磬石棋鋪鼎足灘 一棹穿出綠漪瀾 黃驍漁子行相遇 又買銀鱗付夕餐 검은 돌이 바둑처럼 펼쳐진 정족탄에 / 북 같은 작은 배가 푸른 물결 뚫고 나간다 / 여주의 어부와 가다가 서로 만나 / 또 물고기 사서 저녁 반찬 만들었네” 『천우기행』 절구 22번째 수.
- 28) “鄔莊樹色忽妍敷 滕水殘山別格紆 要識文章肖天法 須從險處作平鋪 오장 나무빛이 문득 곱게 펼쳐지고 / 남은 물 남은 산이 나뉘어 마을을 감돌아 흐르네 / 문장 짓는 데 하늘의 법 닮은 걸 알고자 한다면 / 험한 곳에서 평평하게 만든 것을 따라야지” 『천우기행』 절구 13번째 수.

年年此樂寧云少 해마다 이 즐거움을 어찌 적다고 하라
 只是池塘草又生 다만 못둑에 풀이 또 돌아났다네²⁹⁾
 중씨(仲氏)를 생각해서 한 말이다.

1차 춘천 여행은 큰 형 약현을 모시고 조카의 납체를 위해 떠난 길이였다. 이 여행에서 정약용은 둘째 형 정약전을 떠올렸다. 신유사옥(1801년) 때 같이 유배를 떠났다가 율정에서 헤어진 채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정약전에 대한 회상은 정약용이 누리는 여행의 흥취 한쪽에 혈육에 대한 묵직한 그리움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우기행』에는 화두시도 12편 실려 있다.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화운한 화두시는 절구 25수와는 그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제목이 눈에 띈다. 다산은 절구에는 따로 제목을 달지 않았으나 화두시에는 제목을 부여하였다. 화두시 12수에는 이 시가 두보의 어떤 시에 화운한 것인가를 밝히는 제목이 들어가는데 그 제목은 두보의 원시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 다산의 춘천여행 여정을 나타내는 표지 역할도 한다. <조발남일원화동곡현(早發南一原和同谷縣)>이라는 화운시 첫 번째 수의 제목은 이 시가 두보의 <동곡현(同谷縣)>에 화운한 시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아침 일찍 남일원을 떠난 자신의 여정도 밝혀 주고 있다. 『천우기행』에 실린 화두시 12수의 제목은 이런 점에서 그 시적 기능이 동일하다.³⁰⁾

또 다른 차이는 설명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산은 제목에 언급한 지명에 대해서는 시 중간에라도 주를 사용하여 설명을 더해 준다. 12수의 화두시 가운데, 6수는 제목 아래에, 10수는 시 내용 안에 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화두시 12수는 타자를 의식한 시 쓰기로 볼 수 있다. 이는 화두시가 절구보다 시의 길이

29) 『천우기행』 절구 2번째 수.

30) 화두시 4번째 수 <초연각화비선각(超然閣和飛仙閣)>이나, 10번째 수 <마적산화녹두산(馬跡山和鹿頭山)> 모두 그 제목을 통해 자신이 화운한 두보의 원시와 함께 자신의 여정을 알려주고 있다.

가 더 길어, 자신의 심회든 지역의 특징이든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가 보다 더 쉽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화두시에 나타난 이런 설명적 태도는 압축적인 시를 벗어나 자유로운 산문을 지향하게 하는데, 이후 1823년에 저작된 『산행일기』가 시와 문으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천우기행』에 실린 화두시의 또다른 특징은 차운(次韻)이 아닌 화운(和韻)이라는 점이다. 화운은 차운보다 더욱 접근성이 강한 화답의 의미이며,³¹⁾ 심리적으로 더 밀착된 형태이다. 다산이 단지 두보 시의 운을 빌려 쓰는 차운 방식이 아니라 두보의 시에 화답하는 화운 방식을 선택한 것은 방식의 선택 그 자체로 두보에 대한 자신의 동질감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愛此仙源水	사랑스러워라 이 선원의 물은
本出長安橋	본디 장안교에서 나온 것인데
금강산에 장안사가 있다.	
夙昔名山願	이전부터 명산 구경 바랐으나
到老竟蕭蕭	늘그막에 이르러 도리어 쓸쓸했었지
今行可窮覽	이번 길에야 다 구경하게 되니
衣帶遠飄飄	허리띠가 멀리까지 바람에 나부끼네
吾聞狹首峽	내가 들으니 성수협 물은
灘瀨益宣驕	여울이 더욱 위세를 부린다기에
성수는 바로 낭천(狼川)이다.	
悵然中改路	한탄스럽게도 중도에 길을 바꾸었는데
後期不可要	후일의 기약은 바랄 수도 없구나
妻孥絆閒身	처자식이 한가한 이 몸을 얽어맸으니
赧愧顏發潮	부끄럽고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네
遙遙枯柏渡	멀고 먼 저 길백 나무
詩句兩寂寥	두보 시나 내 시나 쓸쓸하도다

31) 최중호, 「다산 정약용의 두보시 수용양상」, 『동아인문학』 18, 동아인문화회, 2010, 200쪽.

空羨賈客船 공연히 부러운 건 그 장삿배에
 蜀薑交海椒 촉강과 해초가 섞여 있다는 것
 하손(何遜)의 칠소(七召)에 해초(海椒)·노시(魯?)·하염(河鹽)·촉강(蜀薑)을 말하였다.

왜 하필 두보였을까? 이는 두보의 불우한 삶, 정치적 좌절, 우국우민의 염 등에 다산이 상당 부분 일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구양적요(詩句兩寂寥), 두보 시나 내 시나 쓸쓸하도다’라는 시구도 이런 동질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화두시 마지막인 12번째 수 <우수주화성도부(牛首州和成都府)>는 좀 예외적인 시이다.

命僕理歸楫 종을 시켜 돌아갈 배 다스리나니
 水風吹衣裳 강바람이 옷가지에 불어 오누나
 暮宿牛首村 저물녘 우수촌에 묵었는데
 顧瞻詳四方 자세히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嗟茲樂浪城 아, 이 낙랑성이
 冒名云貂鄉 맥향이라는 이름은 둘러썼어도
 木皮不能寸 나무껍질은 일 촌도 되지 못하고
 五穀連阡長 오곡은 밭둑을 연하여 자란다네
 《한서(漢書)》 조조전(晁錯傳)에 이르기를 “호맥(胡貊)의 땅은 추워서 나무껍질은 삼 촌(三寸)이나 되고 얼음 두께가 육 척(六尺)이나 된다.” 하였고, 맹자(孟子)는 이르기를 “맥(貊)의 땅에는 오곡이 자라지 않고 오직 기장만이 자란다.” 하였다.
 地暄發生早 땅이 따뜻하니 초목의 생육이 일러서
 首夏葉已蒼 초여름에 나뭇잎이 이미 푸르며
 鴈鳩樹樹喧 뻐꾸기는 나무마다 지저귀고
 黃鳥弄柔簧 피꼬리는 부드럽게 피리 부는 듯
 南韓昔巡撫 옛날 신라왕이 백성을 위로하고부터
 漢使川無梁 한 나라 사신이 끊겼다
 勒石久埋沒 새긴 돌은 오래도록 묻혀 있어서
 薰聲竟微茫 높은 명성이 끝내 아득하구나
 우두산(牛頭山)에 팽오(彭吳)의 통도비(通道碑)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다. 신라 때 기림왕(基臨王)이 순행(巡幸)차 우두주(牛頭州)에 왔었는데, 그 후로는 한(漢) 나라

관리(官吏)가 다시 오지 않았다. /

小水梁若澦 갑자기 좁아진 물목은 예맥과 같아서

其名本無光 이름이 본디 드러나지 않았는데

國史有誰讀 우리나라 역사를 그 누가 읽으랴

登覽深悲傷 올라 보니 슬픈 마음 더하구나

남곤(南袞)이 말하기를 “《동국통감(東國通鑑)》을 누가 읽으랴.” 하였다.

화두시라고는 해도 이 시는 앞의 시 11수처럼 여정을 드러내거나 자신과 두보의 심정적 동질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가 아니다. 이 시는 춘천이 맥국이 아님을 고증한 논설적 시이다. 다산은 춘천을 맥국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 『한서』 『조조전』이나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여 그 견해가 옳지 않다는 점을 시에서 논증해 내고 있다. 전적(典籍)은 맥 땅이 추위 때문에 나무껍질이 삼 촌(三寸)이나 된다거나 오곡이 자라지 않고 오직 기장만 자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곳은 오곡이 발육을 이어 자라고 나무 껍질도 일 촌이 못 되게 얇은 곳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맥 땅이 아닌 것이다. 다산은 왜 이런 내용들을 시에 담아냈을까? 화두시 12번째 수는 시를 통한 비정(批正)에 무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은 우수주 즉 춘천을 맥으로 보는 기존의 논의가 틀렸다는 것을 고증하고 시를 통해 이를 진술해 낸 것이다. 화두시 12번째 수에 나타난 이 내용은 3년 후 2차 춘천 여행의 성과물인 『산행일기』에서 <맥변(貊辨)>으로 구체화되며, 이런 식의 논증은 『산행일기』에 나타난 논증적 태도와도 연결된다.

4. 시를 통한 경세 지향의 노정(露呈)

1) 1820년 『천우기행』의 경우

1819년 충주 여행 때의 시가 여행의 흥취를 담아낸 것이라면 『천우기

행』에 수록된 시는 여행의 즐거움을 그려내는 한편 실용적 용도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들이다. 무엇보다도 시의 목적을 의식하고 있는 점이 충주 여행 때의 시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천우기행』에 수록된 절구 3번째 수는 이를 잘 보여준다.

牛首山前牛首州	우수산 앞은 우수주인데
彭吳故道水漉漉	팽오의 옛길에 물이 흘러내리네
李淸水註嗟多缺	아, 이정의 수경주에 부족한 곳 많으니
歸日應須補一寫	돌아가서는 응당 한 책을 보충해야겠구나 ³²⁾

다산은 1814년 제자 이청의 도움으로 『대동수경』을 완성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대동수경』에는 다산이 열수라 불렀던 한강의 두 맥인 산수와 습수, 즉 북한강과 남한강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 열수에 대한 기술이 누락된 것이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³³⁾ 이 시에서 다산은 이번 춘천 여행의 경험이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수경』에 대한 보주(補注)를 의식하고 시를 쓰는 것임을 시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충주 여행 때의 절구 75수에는 주석이 하나도 없었던 데 비해 『천우기행』 수록 절구 25수에는 주가 달린 시가 12수나 된다. 타자를 의식한 시 쓰기의 기미³⁴⁾가 나타난

32) 『천우기행』 절구 2번째 수.

33) 다산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자신의 저술 중 미완성인 것들은 따로 표시하였는데 『대동수경』 2권에는 그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산이 중부 이북 지역의 하천만을 기술하고 중부 이남 지역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즉, 현재 전하는 『대동수경』에 중부 이남 지역의 내용이 없는 것은, 원래 다산은 모든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이후에 이청이 주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의 주석을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완성을 하였지만 한강 이남 지역을 서술한 부분이 후에 산일된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보경, 앞의 글 106-107쪽.

34) 타자를 염두에 둔 시 쓰기가 역시 『천우기행』에 실린 화두시(和杜詩)에도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3장 2)1820년 『천우기행』의 경우 참조.

다고 볼 수 있다.

直北穿牛又北東	곧장 북으로 우수를 관통하고 다시 북동 뚫어
澄泓十里亂山中	맑은 강물이 십 리의 산속 지나는데
放翁入峽書中景	방옹의 입협서 가운데 경치와 비교해 보니
一曲差殊二曲同	한 굽이만 약간 다르고 두 굽이는 똑같네 ³⁵⁾

시로써 여정을 기록하려다 보니 이렇게 북한강 수계의 풍경을 마치 약도를 그리듯 묘사하고 있는 시도 나타난다. 이것은 『천우기행』의 절구가 여행의 흥취를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松澗村北石崔崔	송의촌 북쪽은 암석들이 우뚝하고
天作金城背水隈	하늘이 낸 금성은 물굽이를 등졌네
可但蒜峯宜築堡	오직 산봉에만 보루 쌓기에 마땅하리니
太湖良嶽儘談壤	태호와 간악 다 뱃대끈 희롱하기 다하였네 ³⁶⁾

유서애(柳西厓)가 이르기를 “백성의 보루로 삼을 곳은 산봉만한 데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 풍광이 뛰어난 여정 외에, 요새로서 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가 높은 곳을 시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 1542~1607)의 견해까지 보충하면서 송의촌이 금성당지로 꼽을 만한 곳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문지리서에 실릴 만한 실용적 내용을 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820년 『천우기행』에 실린 시들의 성격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25수의 절구들은 충주 여행의 경험이 담긴 1819년의 75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행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한편 춘천 여행의 여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화두시의 경우에는 절구에 비해

35) 『천우기행』 절구 10번째 수.

36) 『천우기행』 절구 12번째 수.

여정의 표지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 1823년 『산행일기(汕行日記)』의 경우

정약용은 2차 춘천 여행을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신이 ‘한계와 곡운 사이에 뜻이 있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서는 손자의 납채를 마무리한 후 한계와 곡운 등 산수를 유람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인 것 같다. 그러나 『산행일기』 4월 15일 기록에는 또다른 여행의 목적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적고 있다.

“경진년에 시를 가지고 기행을 기록하여 갈 때에는 자세하였고 돌아올 때에는 많이 생략하였다. 올해는 별도로 물길을 기록하면서 갈 때에는 생략하고 올 때에 자세히 기록하여 경진년의 기행과 서로 합쳐 맞추고자 한다. 또 물길의 근원을 기록하여 수경을 편찬하는 분의 보수에 대비하고자 한다.”³⁷⁾

이는 『수경』 주를 보충하겠다는 목적을 시를 통해 언급했던 1820년 『천우기행』³⁸⁾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한 진술이다. 시로써 여정을 기술하겠다는 다산의 이런 생각은 1823년 『산행일기』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여행의 목적은 단순한 산수 유람이 아니다. 『수경』의 완성을 위해 떠나는 실증적 탐사이기도 한 것이다.

『산행일기』는 새로 시를 짓는 대신 『천우기행』의 시를 재구성하여 수록하는 것으로 춘천까지의 여정을 갈음하고 있다. 춘천에 도착하는 4월 20일까지는 1820년에 지었던 『천우기행』의 시를 통해 춘천까지의 여정

37) “庚辰以詩紀行 詳於往時 略於回路 今年別記水次 略於往時 詳於回路 欲彼此相備 又欲順水之源委 以備水經家補註”, 『산행일기』 서.

38) 『천우기행』 절구 3번째 수 경미련 “李晴水註嗟多缺 歸日應須補一寫, 아, 이정의 『수경』 주에 부족한 곳이 많으니 / 돌아가서는 마땅히 한 책을 보충해야겠구나”

을 보여주고, 그 이후 춘천에서 마재까지 내려오는 귀로에는 새로 시를 지어 여정을 보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우기행』 수록 시와 달리 『산행일기』의 시들이 여정 기록의 기능을 했다는 것은 시의 제목에서도 확인된다. 『천우기행』의 경우에는 수록된 절구 25수는 모두 제목이 없으며 화운시 12수와 잡체시에서야 제목에 여정이 등장한다. 그런데 『산행일기』는 다르다. 제목이 없는 탓에 이 시가 어느 여정과 부합하는 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천우기행』에 서와는 달리, 『산행일기』에서는 그 시가 어느 여정을 표현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천우기행』에 실었던 시를 해당 여정에 대응하도록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1820년 『천우기행』 저술 당시 다산이 밝혀 적지 않았던 여정들이, 1823년 2차 춘천 여행의 여정에 배치되면서 비로소 어느 지역의 어디쯤을 지나는 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춘천에서 마재로 돌아가는 길에 다산이 새로 지은 계미년(1823년)의 시들에는 처음부터 모두 제목이 부여되었다. 제목을 통해 시의 배경이 어디이며 이 시가 여정 어디쯤에서 지어진 시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부여는 여정의 기록이라는 『산행일기』 수록 시들의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산은 2차 춘천 여행에서 춘천에서의 여정과 마재로의 귀로에서만 시를 지었다. 춘천에 도착한 4월 20일까지는 새로 시를 짓는 대신 3년 전 여행에서 지었던 시들을 재구성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여정을 기록하였다. 다산은 왜 1823년 춘천 가는 길에는 새로 시를 짓지 않았을까?

우선, 1820년 1차 춘천 여행길에 지은 자신의 시에 어느 정도 만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시에서 이룬 의경에 만족하여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시를 짓는 시도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시로써 여정을 기록하겠다는 의식적 접근이 더 큰 이유일 수 있다. 마재에서 춘천 간의 여정은 이미 3년 전에 정리를 마쳤

기 때문에 2차 춘천 여행에서는 3년 전 여행에서 완성하지 못 했던 부분에만 집중하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산이 이 시기의 시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시를 통해 여행의 흥취를 드러내는 대신, 북한강 수계 곳곳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전하려 한 것이다. 이는 다산이 『수정』의 보주(補注)에 대비하여 사실 전달적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조선 후기의 여행 기록물들이 사실 보고의 성격으로 흘렀다는 지적³⁹⁾과도 관련된다.

『천우기행』의 시를 『산행일기』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산은 『천우기행』의 원래 시를 상당 부분 재구성하였다. 시문의 재구성은 기존의 시문을 해체하는 과정과 그 중 일부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선정한 것을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시켜 재배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⁴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산이 『천우기행』 원시에 형상화했던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거나 소거한 후 『산행일기』에 배치하고 있어 그 점이 주목된다.

『천우기행』 화두시 3번 <입천도화백사도(笠川渡和白沙渡)>를 보면, 1820년 『천우기행』에 실린 원시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다.

夕靄澹青嶼	푸른 봉우리엔 저녁 아지랑이 맑고
餘霞復靡漫	남은 노을 또다시 자욱하구나
停舟類魚隊	배 멈추고 고기떼를 내려다보니
百慮淨蕭散	온갖 근심이 흩어져 깨끗하여라
桃源本自好	도원은 본디 자체로 좋은 곳인데
何必須秦亂	하필 진 나라의 난리가 필요하라
無人議行藏	내 행장을 함께 의논할 사람 없어
臨流獨永歎	물에 임하여 홀로 탄식하노라

39) 김태준, 『한국의 여행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22쪽.

40) 신은경, 『丁若鏞의 『汕行日記』 연구: 對位法的 構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 157쪽.

그런데 여정을 나타내는 용도로 이 시를 재구성하여 1823년 『산행일기』에 실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시의 후반부를 삭제하였다. 양쪽 강 기슭 사이로 물 흐름이 완만하고 고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할 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시선은 지우고 있는 것이다.

夕靄澹青嶼	푸른 봉우리엔 저녁 아지랑이 맑고
餘霞復靡漫	남은 노을 또다시 자욱하구나
停舟頰魚隊	배 멈추고 고기떼를 내려다보니
百慮淨蕭散	온갖 근심이 흩어져 깨끗하여라

다산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시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다.

桃源本自好	도원은 본디 자체로 좋은 곳인데
何必須秦亂	하필 진 나라의 난리가 필요하라
無人議行藏	내 행장을 함께 의논할 사람 없어
臨流獨永歎	물에 임하여 홀로 탄식하노라

생략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시적 화자인 자신의 탄식이다. 화자는 갖내[笠川]를 건너면서 두보의 시를 떠올리고 그의 시 <백사도(白沙渡)>에 화운한다. 그는 난리를 피해 들어간 진나라 사람들의 낙원인 무릉도원을 떠올려 보면서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⁴¹⁾ 그러나 이런 고민을 나눌 이가 없다. 자신의 행장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어 입천을 건너며 화자는 홀로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천우기행』에 실린 원시에서는 이 부분이 시적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었지만, 『산행일기』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화자 내면의 음성은 지워버린

41) 다산은 이상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1801년 장기 유배 때는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를 통해 현실의 개선형이자 진화형으로서의 이상세계를 제시한 바 있다. 김은미, 『다산 정약용의 <薇源隱士歌> 고찰 -도연명 <桃花源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8집, 퇴계학연구원, 2016 참조.

채 입천이라는 곳이 푸른 봉우리 담박한 맑고 조용한 곳임을 드러내기만 하였다. 즉, 1차 춘천 여행에서 시로 형상화했던 여행의 흥취와 그로부터 촉발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2차 춘천 여행 때 『산행일기』에 수록하면서는 소거해 버린 것이다. 이는 다산이 자신의 모습이나 심회를 드러내어 결과적으로 ‘시로써 여정을 기록하겠다’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 목적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생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행일기』에 수록된 다산의 시들은 『천우기행』에서 기술되었던 개인의 심회는 모두 은폐한 채, 오로지 여정을 드러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시에 대한 다산의 태도가 여행의 감흥을 술회하던 이전에 비해 어떤 실용적 목적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차 춘천 여행에서 다산이 집중한 것은 특히 비정의 문제였다. 4월 22일 곡운서원을 방문한 다산은 곡운서원에 걸려 있는 화상들에 대해 평한다. 그런데 그 중 공자의 화상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붓을 놀린 듯 하다며 아예 화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적고 있다. 더하여, 제갈무후의 화상에 대해서도 마치 불화의 명부 초상 같다며 치워버려야 한다고 쓰고 있다. 여행 중 들른 서원에서 그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화상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평하고 정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정의 의식은 곡운(谷雲)의 구곡(九曲)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다산은 『산행일기』에서 곡운 김수중(1624~1701)이 지은 「곡운구곡서」를 소개하면서 곡운 구곡에 대한 기(記)를 짓는다. 그런데 기의 내용이 인상적이다. 현재의 곡운 구곡은 잘못 선정되었으므로 이름과 실체가 맞도록 자신이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9개 계곡을 자신이 새로 정한 9개의 계곡으로 대체하고 있기까지 하다.

산수와 습수를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이와 같은 비정의 맥락이다.⁴²⁾ 1819년 충주 여행의 체험을 시화한 작품에서 다산은 『사기(史記)』

42) 심경호, 『茶山과 春川』, 강원대학교출판부, 1996, 31-34쪽.

에 근거하여 남한강을 습수로 본 바 있다. 그런 태도 역시 역사 지리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도록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산의 이런 비정의 자세는 여행 체험을 시로 형상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시를 통해 경세적 관심과 학문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산이 바로잡으려 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춘천이 맥국(貊國)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1820년 『천우기행』에서는 춘천이 맥국이 아님을 화두시 12번째 수 <우수주화성도부(牛首州和成都府)>를 통해 진술하였지만, 1823년 『산행일기』에서는 따로 <맥변(貊辨)>을 기술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재론한다.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변하는 데에는, 형식적 제약이 있는 시보다 내용과 분량이 자유로운 산문이 더 유리함은 물론이다. 『산행일기』에서 다산은 시와 문을 함께 사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천우기행』에서 보였던 지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들도 1823년 『산행일기』에 이르면 보다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1820년 『천우기행』에서는 시에 주를 달아 처리하였던 것을 여기서는 아예 따로 독립시켜 산문으로 이전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지명을 바로잡으려는 다산의 이런 노력들은 역시 2차 춘천 여행 직후의 저작인 『산수심원기』에 응축되었다. 인문지리서로 평가받는 『산수심원기』의 마지막 부분은 비정(批正)에 대한 다산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내가 고찰하건대, 열수(洑水)는 『수경』에 실리지 않았는데, 제씨(齊氏)의 기술한 것은 황당무계하며 춘천성 이하는 더욱 괴망하여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가 북경(北京)으로부터 수천 리 안에 있어 연락이 끊어질 않는데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이는 대개 우리 통역관들이 저들의 부탁을 받고 도경(圖經)을 주면서 공개하여 누설하는 것이 죄가 될까 두려워하여 지도를 위작해 저들을 속인 것인데, 저들은 그를 믿고 사용하여 이와 같이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 자고로 이와 같다. 그러므로 가탐(賈耽, 730~805)의 『군국지(郡國志)』와 모원의(茅元儀, 1594~1640)의 『점도(占度)』에 실린

것이 황망하기가 모두 동일하다.”⁴³⁾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다산의 의식은 1,2차 춘천 여행의 경험을 통해 『산행일기』를 산출하였고, 더 나아가 지리서인 『산수심원기』를 기술하게 하였다. 비정(批正)이란 그간의 것이 잘못 되었음을 전제로 진행되는 지적(知的) 과정이다. 그런데, 다산의 이런 노력들은 단지 지리적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산행일기』에서 발견되는 다산의 또다른 관심은 공적 자아로서 백성의 삶에 대한 관심이었다. 여행 첫날 묵었던 호후관 삼가촌에서 다산은 인생이 고경(苦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삼가촌의 세 집 중 두 집은 서로 싸워 상투를 뽑는가 하면 악화된 감정으로 서로 문을 닫아걸고 있고, 투숙을 위해 찾아들어간 다른 한 집은 화전 농던 주인 할멈이 나무뿌리에 발을 뚫려와 밤새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집이었다. 팍팍하면서 한편으로 처절하기까지 한 삼가촌의 풍경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산은 밝혀 적지 않았으나, 얼마 후 주막에서 만나게 되는 늙은 교졸과 향갑의 언술을 통해 그 숨긴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졸과 향갑은 ‘지금 춘주는 망했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선언에 따르면 관가의 재정은 파탄났고 아전은 부패하였으며 세금 징수는 끝도 없다. 성실한 아전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남은 아전들은 백성 수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졸과 향갑은 이제는 아무리 어진이가 내려와도 관직을 버리고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단언한다.

다산이 보기에 춘천은 우리나라의 성도(成都)였다. 촉나라의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위난의 때에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춘주였다. 그런데 교졸과 향갑의 진술대로라면 지금 춘주는 망한 것이다. 다산

43) “案洌水不載水經 齊氏所述 荒謬顛錯 春川城以下 尤怪妄無據 我邦在北京數千里之內 信息連續 何至若此 蓋吾東象胥之人 受彼叮囑 贈以圖經 又恐宣泄爲罪 僞作地圖 以誑彼人 彼信而用之 狼狽如此耳 東人之不能純慤 自古如 故賈耽郡國志 茅元儀占度 載其荒謬 皆同也”, 『다산시문집』 제22권 잡평(雜評).

은 춘주의 쇠락을 안타까워한다. 도망한 아전과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여 안주시키는 데는 6, 7년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조정은 도리어 아침에 제수한 도호부사를 저녁에 바꾸고 있으니 애석하다는 것이다.

다산은 1823년 2차 춘천 여행 후에 저술된 『산행일기』에 호후관 삼가촌에서 목격했던 피폐한 백성의 삶과, 그 원인과 현황을 짚어주는 교졸과 향갑과의 대화 등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 이것은 여행의 흥취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여행 체험을 형상화했던 이전의 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공적 자아로서의 자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1819년 충주 여행에서 저류하다가 1차 춘천 여행에서 서서히 표면화되던 다산의 공적 자아로서의 의식이 2차 춘천 여행에서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산의 경세에 대한 관심이 시로써 여정을 기록하는 실용적 목적을 넘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니 곡운 구곡을 탐승하는 길에서도, 양곡을 푼다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관창의 곡식에 결손이 많아 그저 말로만 방량(放糧)한다 하는 장면이 다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전의 충주 여행이나 『천우기행』에서 일반적 서술에 그치던 공적 자아의 목소리가 『산행일기』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산 자신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여행 흥취의 점감(漸減), 경세 지향의 점증(漸增)

다산이 충주 여행 후 남긴 시들은 주로 여행의 즐거움을 담은 시들이었다. 이런 여행의 흥취는 『천우기행』까지 연결된다. 그러나 『천우기행』에서는 충주 여행에서처럼 여행의 흥취가 여전한 한편으로, 차츰 사실 보고적 색채가 어리기 시작하며 충주 여행 직후에 비해 고증이나 설명도 보다 세세해진다. 절구에서는 여전히 여행의 유쾌함을 노래했으나 두

보의 시에 화운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12수의 화두시에서는 고증과 사실 보고에 무게를 둔 것이 확인된다.

그러다가 1823년 『산행일기』에서는 『천우기행』 수록 시를 배치하면서 개인의 감회나 감상 부분은 의도적으로 편집해 지우고 사실 보고적 시 구에만 의미를 부여하여 그 부분만 사용한다. 시로써 여정을 기록하겠다는 서론의 언설을 실행하면서 그 목적에 맞춰 『천우기행』의 시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제 충주 여행에서 보이던 여행의 흥취나 선상 유람의 시선은 약화되면서, 비정과 사실 전달, 보고와 주장에 치중하게 된다. 다산은 5년 동안 자신의 여행 경험을 선형 순차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내재적 연속성 안에서 시로 형상화하였는데, 5년 사이에 그 시에서는 여행의 흥취가 차츰 줄어들면서 한편으로 사실 보고의 경직성 또는 경세 지향의 공적 의식은 점차 짙어지는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이 그라데이션(gradation)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배 직후의 세 차례 여행에서, 처음에는 선명하던 여행의 흥취가 점차 흐려지는 대신 열게 보이던 공적 자아로서의 경세 지향이 차츰 선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819년의 충주 여행은 18년의 유배에서 벗어난 다산이 해배 후 처음 떠나는 여행으로 선영 참배가 목적이었다. 유배살이의 피로감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여유와 평온을 맛보는 시기였던 것이다. 물론 공적 자아로서의 자기인식을 완전히 망각한 것은 아니었다. 유배 기간 내내 경제학을 완성하느라 애썼던 다산이 공적 자아로서의 의식을 지우기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18년 긴 유배에서 풀려난 해배 직후의 여유와 흥가분함은 다산에게 공적 책임감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공적 자아로서의 사명감 외에 사적 자아가 누리는 해방감과 안도감도 이 시기 다산에게는 컸을 것이다. 그래서 1819년 충주 여행에서는 목민에 대한 의식보다는 해배 이후의 여유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1820년 1차 춘천 여행에서도 일상을 벗어난 여행의 흥취는 여전히 확

인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공적 자아의 책무에 대한 인식이 한 해 전 충주 여행 때보다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절구를 통해서도 여행의 흥취를 풀어내고 있지만 두보의 시에 화운하는 방식으로 공적 자아로서의 자신의 책무도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수경』의 주를 보충하는 것에 대비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비정의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공적 자아로서의 책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1823년 두 번째 춘천 여행에서 다산은 시로써 그 여정을 기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동수경』에서 다루지 않았던 산수와 습수의 연원에까지 본격적으로 관심을 확대한다. 또한 춘천이 맥이 아님을 보다 더 강경하게 논설한다.

다산은 이런 일련의 비정 과정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른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현재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바른 상태가 무엇인지는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지명을 바로잡거나, 이름과 실체가 맞지 않는 곡운 구곡을 자신이 새로 설정하거나 하는 것은 지리적 관심에서만 해석할 일이 아니다. 이는 다산의 경세 지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춘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이전의 말을 빌려 진술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들이 도처에 실재한다는 인식의 발현이며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충주 여행에서는 구원을 경영해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진술할 뿐이지만, 『산행일기』에 이르면 망해가는 춘주를 되짚어 보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공적 자아로서의 인식의 확장은 곳곳에 드러나는 다산의 경세 지향이 해배 이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진적으로 차츰 선명해져 갔음을 의미한다. 1823년 『산행일기』에서 1820년의 여행 체험을 되살려 내고는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감회는 상당 부분 소거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공적 자아의 확장, 즉 다산의 경세 지향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⁴⁴⁾ 다산은 자신의 경세 지향을 부조화(浮彫化)하여 드러내는 데에 개인적 감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1819년 충주 여행의 시에는 경세 지향이 저류하는 상태에서 여행의 흥취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면, 1820년 1차 춘천 여행의 시에서는 여전히 여행의 즐거움이 유지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저류하던 경세 지향도 차츰 표출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823년 2차 춘천 여행의 시문에 이르면 사적 자아의 여행 체험은 소거되거나 약화되고 공적 자아로서의 인식과 시선이 강조된다. 1차 춘천 여행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경세 지향도 이전에 비해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배 직후 3번의 여행 체험이 시화되는 과정에서 이 여행 경험은 내재적 연속성을 가지며, 이는 선형 순차적 구조 안에서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의 점진적 변이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6. 결론 : 해배 직후 문학에 나타난 경세 지향

다산이 남긴 충주 여행의 절구 75수와 『천우기행』, 『산행일기』는 모두 내재적 연속성을 가지면서 선형 순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충주 여행의 체험 일부가 『천우기행』으로 연결되고, 『천우기행』의 시편 일부가 『산행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의 여행 경험이 각각의 병렬적 구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행 체험이라는 하나의 긴 흐름 속에서 순차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4) 이 시기에 특별히 고증이 많이 나타난 것은 『아언각비』 완성 시기가 1819년인 것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1821년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산수 간을 소요하면서 나의 일생을 마치기로 하였다.’(消搖山澤間以終焉)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1822년 『사대고례산보(事大考例刪補)』를 완성하고, 6월 신작(申綽, 1760~1828)의 편지에 답하면서 육향의 제도를 논의하는 등, 다산은 해배 이후 노년에도 경세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구조상의 특징만은 아니다. 충주 여행에서 경세 지향은 저류할 뿐 노출되지 않은 채 여행의 흥취가 도드라지고 있으나, 『천우기행』으로 가면서는 여행의 흥취 못지않게 경세 지향도 표면화되기 시작하다가, 『산행일기』에 이르러서는 여행의 흥취는 오히려 은폐하면서 경세 지향을 보다 강하게 부각시킨다. 여행 경험이라는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을 점진적으로 변이시키는 그라데이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행 흥취와 경세 지향의 점진적 변이 양상은 다산의 해배 이후 문학의 특징을 보여준다. 유배에서 풀려나 잠시 자유로운 사적 자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한편에도 다산의 시에는 늘 유자적 관심, 공적 자아로서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적 자아로서의 책무에 대한 자각이나 경세 지향적 의식은 때로는 개인 상황 때문에 저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표면화되고 선명해졌다. 그래서 2차 춘천 여행을 시화하는 데 이르러서는 공적 자아로서의 관심이 오히려 여행의 즐거움보다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배 직후 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지만, 해배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 동안에 전개된 다산의 내적 지향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해배 직후 세 차례 여행 체험과 그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는, 그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시피 한 다산의 해배 이후 문학에 대해 보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작품에 기초한 보다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편의 작품에 기반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비로소 다산의 해배 이후의 문학 양상을 제대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산의 해배 직후 시에 대한 검토는 해배 이후 다산시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全唐詩』(中國 上海古籍出版社)

김태준, 『한국의 여행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송재소, 『茶山詩 研究 - 附 茶山年譜』, 창작사, 1986.

심경호, 『茶山과 春川』, 강원대학교출판부, 1996.

조성을, 『與猶堂集의 文獻學的 研究 - 詩律 및 雜文의 年代考證을 中心으로』, 해안, 2004.

권혁진, 「춘천지역의 경관을 노래한 한시 연구」, 『강원문화연구』 제26집, 강원문화연구소, 2007, 57-80쪽.

김봉남, 「다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변모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6.

김은미, 「다산 정약용의 「薇源隱士歌」 고찰 - 도연명 「桃花源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8집, 퇴계학연구원, 2016.

신은경, 「丁若鏞의 『汕行日記』 연구 : 對位法的 構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 135-160쪽.

양보경, 「丁若鏞의 地理認識 - 「大東水經」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Vol.20 No.2 통권 6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99-116쪽.

용환진, 「茶山の 春川紀行詩 研究 - 『穿牛紀行』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2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121-148쪽.

조성을, 「해배 이후(1818~1836)의 다산-활동과 저작-」, 『다산 서거 180주년 기념 다산학 학술회의 발표 요지』, 다산학술재단, 2016.

최숙인, 「여행자 문학의 관점에서 본 이덕무의 「입연기(入燕記)」 연구」, 『비교문학』 35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05, 95-126쪽.

최중호, 「다산 정약용의 두보시 수용양상」, 『동아인문학』 18집, 동아인문학회, 2010, 189-224쪽.

<Abstract>

Gradations of the Pleasure of Travel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 Appearing in Dasan's Poems
Immediately after Exile Release
- Focusing on poems from Chungju travel, *Cheonwugihang*,
and Sansoosimwongji

Kim, Eun-Mi*

In the meantime, Dasan's poetry after exile release was classified only as a sort of stepping back from the world and enjoy your life comfortably but it was not studied precisely. However, the identification of the poetry at this time is essential to view the whole of Dasan's poet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aspect of Dasan's poetry after exile release with more detailed and concrete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his works.

Dasan, released from exile in 1818, travels three times after his exile release. They are the Chungju travel in 1819 to go to worship ancestral tombs, and the Cheoncheon travels in 1820 and 1823 that he took due to his offspring's wedding presents. These trips were all waterway trips, travel experiences packed with poems and they are handed down through various quatrains from Chungju travel, *Cheonwu Travels* in 1820, and *Mountain Travel Diary* in 1823.

* Post-Graduate, Pusan Univ.

However, these works show continuity even though there are time lags, and can be seen as linear sequential writings. There is continuance in the experience of Chungju travel in 1819 followed *Cheonwu Travels* in 1820 and the anthology of *Cheonwu Travels* in 1820 was succeeded to *Mountain Travel Diary* in 1823. In fact, Dasan completed 100 poems by writing the remaining 25 poems in *Cheoncheon travel* in 1820 that were kept in mind following the 75 poems of quatrain from Chungju travel, and he recorded the journey of *Mountain Travel Diary* in 1823 by editing and rearranging the anthology of *Cheonwu Travels* in 1820.

This continuity and internal changes are also detected in the contents of his poems. In Chungju travel just after the exile release, he wrote poems with strong travel pleasures, but such personal pleasures of his gradually diminished in the poems through travels in 1820 and 1823, while hi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 underlying in the poems of travel in 1819 was gradually strengthened and appeared in poems through travels in 1820 and 1823. As the experience of three trips immediately after the exile release is visualized, it is shown that there is a gradation of the pleasure of travel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 in a linear sequential structure.

In the poems that reflect the travel experience immediately after the exile release, the gradations of pleasures of travel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 show that the poetry after Dasan's exile release cannot be elaborated simply as a sort of stepping back from the world and enjoy your life comfortably. This suggests that more delicate research is needed for his poetry after

exile release. To grasp the whole picture of Dasan's poetry, the evolution of his poetry after exile release should be more precisely identified.

Kew Words: Dasan, Dasan' Poems, Cheonwugihang, Sansoosimwongi, the pleasure of travel,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 exile release

■ 논문접수 : 2018년 7월 17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6일

■ 게재확정 : 2018년 8월 17일

